
artnow

ISSUE 11

**SPECIAL: Studio
City Now
Style & Art
Artists & People
Art in Life
Collector
Exhibition
Masterpiece**

**by
Noblesse**

드림 스튜디오

언젠가 마련했으면 하는
근사한 창작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 설치, 드로잉,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저마다 꿈꾸는 작업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홍승혜

마음 내키는 대로 작업하다 보니, 내게 '꿈의 작업실'은 곧 '꿈의 주거지'다. 컴퓨터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내 작업의 전부이므로 넓은 공간도 필요 없다. 도심이지만 고요했으면 좋겠고, 햇빛 가득 들어오는 큰 창을 통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녹지가 보이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누리는 일체형 삶을 꿈꾼다.



구현모

내 경우엔 건물의 구조나 시설보다 어느 동네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상업지구보다는 문화·향락지구면 좋겠다. 작업실은 대부분 (나무를 마음껏 잘라 쓸 수 있는)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내 공간을 위한 구조물은 복잡한 거리와 숲의 경계에 있었으면 한다.



김소희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지만 복층 구조의 작업실이면 좋겠다. 1층은 동판화 제작을 위한 공간, 2층은 많은 영감을 주는 고양이와 함께 조용히 묘화 작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 한쪽에는 판화 작업을 하는 동안 종이를 깨끗이 다룰 수 있는 테이블과 동판화 작업을 위한 테이블, 에디션용 케이스가 있고 작업실 중앙에는 프레스 머신, 그리고 다른 쪽 벽면에는 수도 설비와 잉킹 작업을 하는 테이블을 놓고 싶다. 수납 설비와 작업 테이블은 사람의 손때가 타면 반들반들해지는 원목으로 갖추고 싶다.

